

## 정부는 2027년 예산안에 양극화 완화를 위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.

### <보도내용>

- 2026.9.1. 한겨레신문은 「820조 성장 중심 슈퍼 예산, ‘양극화 완화’ 더 보강해야」 사설에서
  - “양극화에 대응할 재원은 상대적으로 얇다”며, 산업·중소기업·에너지 분야 증가율(29.7%)에 비해 보건·복지·고용 분야 증가율(9.3%)이 충분하지 않고, 첨단 산업은 낙수효과가 작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.

### <기획예산처 입장>

- 2027년도 예산안 투자 중점은 ‘잠재성장률의 추세적 반등’과 ‘성장 과실의 전 세대·계층·지역 확산’으로, 양극화 완화는 한 축을 이루는 핵심 과제입니다.
  - 특정 분야의 증가율만으로 양극화 대응이 부족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며, 이번 예산안은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소득지원에 더해 청년·지역·계층 등을 아우르는 촘촘한 지원체계를 갖추었습니다.
- 2027년 보건·복지·고용 분야 증가율\* 9.3%는 최근 5년 내 최고 수준이며, 증가 규모는 24.6조원으로 내년 총지출 증가분(93조원)의 26%를 차지합니다.
  - \* ('20)12.1% ('21)10.6% ('22)9.0% ('23)3.8% ('24)5.1% ('25)4.7% ('26)8.2% ('27)9.3%

- 특히, 63개 사업의 지원 대상 선정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**+6.7% 인상**하여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를 27.1조원(+4.7조원)으로 확대하였고, **취약계층·위기가구·장애인 지원 등 적극복지 예산도 대폭 보강**하였습니다.(59.5→68.4조원)

\* (생계급여) 4인 가구 월 208→222만원(9.2→10.8조원)  
 (장애인) 장애인연금 0.9→1.1조원(대상 34.5→61.2만명), 장애인활동지원 2.8→3.2조원,  
 (위기가구) **신규** 긴급생계지원 30만원 선지급(53억원), **신규** 생필품꾸러미 지원(2.5만원 상당, 7.5억원), 자살예방 전주기적 관리·지원(736→947억원)

□ 정부는 성장의 과실이 **세대·계층·지역·산업에 고루 확산**되도록 ‘K자형 양극화 대응, 모두의 성장’에 117.1조원(+31.4조원), ‘청년 성장단계별 종합 지원’에 43.3조원(+15.1조원)을 투자합니다.

- 두 분야를 합한 증가 규모는 **46.5조원**으로 ‘27년 총지출 증가분 93조원의 절반 수준에 해당합니다.

**① (청년) 교육, 일자리, 자산, 주거, 혼인·출산·양육, 생활·문화 등 청년 성장 단계별 종합 지원 등(28.2→43.3조원)**

\* (일자리) 일경험·훈련·구직지원 56.4→72.2만명, 일자리도약장려금 연 최대 360→900만원  
 (자산) 청년미래적금 소득요건 폐지(0.7→1.7조원), 우리아이자립펀드·청년기회자금 신설  
 (주거) 청년 공공임대 7.1→10.6만호, 역세권·중형 평수 임대주택 2만호 신규 공급  
 (문화) 청년문화예술패스 19~20세 → 19~34세 / 생애 1회 → 매년, 10/15만원

**② (취약계층) 기초생보 4대 급여 대폭 확대(22.4→27.1조원), 저소득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지원 강화(23.1→25.7조원), 농어민·취약노동자·중저신용자 등 민생 안정도 두텁게 지원(8.0→11.9조원)**

- 특히, 중증장애인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, 노무제공자 사회보험료 지원범위 확대 등 **기존 정책의 사각지대를 촘촘히 보완**

\* (농어민) 농어촌기본소득 0.2→1.2조원, 공익직불금(농업) 3조원 시대 진입  
 (취약노동자) 사회보험료 지원범위를 고용·국민연금 → 산재·건강보험까지 확대  
 (중저신용자) 불법사금융 이용 방지를 위한 **신규** K-민생지킴 대출 공급(0.6조원, 금리 4.5%)

**③ (지역) 지방 완결형 삶을 구현하도록 산업·의료·교육·인프라 등 지방 성장 거점 지원 및 정주여건 확충(16.1→33.0조원)**

- \* (산업) **신규** 앵커기업의 대규모 지방투자 시 설비투자액의 최대 50% 보조(0.7조원)
- (교육) **신규** 지방국립대 30개교 전액장학금 신설(0.2조원), **신규** 미래인재성장자금(0.7조원)
- (의료) 지역필수의료 0.8→1.3조원, 5극3특 거점 국립대병원 육성 1,154→2,551억원

**④ (산업) 장기연체 특별채무 조정, 육아수당 신설 등 소상공인 안전망을 대폭 확충하고, 지역사랑상품권 등 매출기반 확대(2.0→3.5조원)**

- \* (소상공인) 지역사랑·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(29.5→30.1조원)
- 신규** 고용보험 미적용자 육아수당 신설(월 50만원, 3개월)
- 신규** 코로나 장기연체 특별채무조정(0.7조원), **신규** 상생배달앱 할인쿠폰(2,400만장),
- 신규** 건강검진 휴업지원금(최대 10만원, 200만명), **신규** AI·디지털 전환 컨설팅(8,000건)

|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담당 부서 | 예산실<br>예산정책과   | 책임자 | 과 장 | 김정애 (044-214-2330)    |
|       |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사무관 | 고영록 (koyr@korea.kr)   |
| 담당 부서 | 예산실<br>국민복지예산과 | 책임자 | 과 장 | 진민규 (044-214-2910)    |
|       |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사무관 | 이상희 (leet88@korea.kr) |